CNP 차앤박피부과 웹진 제 7호

2009.05

CNP 차앤박피부과 웹진 ON (온)은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핫클리닉 Hot Clinic

드라마틱한 D.R.T 진피재생술

여드름 흉터 지우개, 도자기 피부의 꿈

PAGE : 2

편인터뷰 Fun Interview

동심으로의 회귀를 꿈꾸다

CNP 차앤박피부과 천안점 이정훈 원장

PAGE : 5

줌인 Zoom In

고객의 마음을 연구하는 피부과

노원 CNP 차앤박피부과

PAGE : 7

해피타임 Happy Time

24시간 차앤박피부과를 만나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다

PAGE : 9

포스트잇 Post-it

셀프 여행의 묘미, 일본을 접수하다

여행준비는 알차게, 마음 가득 일본을 품고

PAGE : 11

인터뷰게임 Interview Game

신촌점의 열돌 잔치

10주년을 축하해준 고객들을 인터뷰하다

PAGE : 15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npskin.com/webzine에 방문하시면 CNP 차앤박피부과 웹진을 보실 수 있으며, 방문후기 작성시 행운이 따라옵니다.

핫클리닉 : Hot Clinic

CNP 차앤박의 피부과 시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예뻐지세요!

“ 입소문으로 퍼진 D.R.T 진피재생술의 드라마틱 보고서

여드름 흉터 지우개, 도자기 피부 이제 꿈이 아닙니다.

피부과 집시, 자리를 잡다.

마담슈머 김이희 (34세, 직장인)

싸다면요! 싸다면야~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가진자들의 술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최대한 싼게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래서 싸고, 저렴한 뷰티샵과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 피부과를 전전하며 피부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묵한 내 여드름 흉터만은 요지부동. 나이들면서 더욱 도드라져 보이죠. 탄력을 잃으니 나의 달표면 같은 피부는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10대 이후 내 피부에 자리잡은 여드름 흉터가 어느새 내 자신이 되어 사실 여드름 흉터에 대한 고민보다는 탄력에 대한 해결책 찾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렇게 방문한 CNP 차앤박피부과.

피부과 집시의 내 행로를 마감했습니다. 달표면이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로 바뀌기 까지 2주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더군요. 놀라웠습니다.

중년에게도 로망은 있다.

하하족 유자영 씨(47세, 직장인)

사실 피부과를 홀로 찾는 거 자체가 제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친절한 상담과 치료 스케줄을 받아보고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여드름 흉터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D.R.T 진피 재생술 2회째 시술을 받았고, 한달 만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침체로 어느때보다 위기감을 느끼는 게 40대 아닙니까? 하지만 전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0대의 관록과 여유가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닌 만큼 중년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아저씨라는 용어는 내가 거부합니다. 20대의 열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내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하하족(Happy Aging Healthy & Attractive)이란? 현재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벌이는 중장년층 남성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아저씨라는 용어를 거부하며 청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하하족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이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에 주력합니다.

흉터의 기억은 없다.

이미리 씨(27세, 직장인)

전 아침형 인간으로 통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나만의 아픔으로 인해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죠. 여드름 흉터 때문에 아침마다 페이스오프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드름 흉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두껍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리가 없죠. 이런 아픔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침형 인간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D.R.T 진피재생술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뭐 좋은일 있느냐, 얼굴이 밝아진거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투명하게 화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이제 흉터의 기억은 없어요. 20대를 가장 찬란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D.R.T진피 재생술 포에버!!

D.R.T 진피 재생술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드름흉터 치료에 가장 권위가 있는 CNP 차앤박피부과스러운 시술 및 효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D.R.T진피재생술의 진짜진짜 놀라운 기록 행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돈인 현대인에게 여드름 흉터 시술의 희소속

재생기간 4배 이상 단축

여드름흉터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D.R.T 진피재생술의 가장 큰 장점은 치료기간의 파격적인 단축입니다. 기존의 여드름흉터 시술은 피부를 깍아내는 것으로 재생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D.R.T 진피재생술은 재생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되어 4배 이상 단축 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에 1회 시술후 붉은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까지 6개월이 걸렸던 기존 시술에 비해 2~4주 간격으로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전체 시술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일석이조, 삼조, 사조 ... 한 번 치료로 피부는 도자기

피부치료에 팔방미인 탄생

D.R.T 진피재생술은 기본적으로 피부속 2mm 깊이까지 조사되어 레이저 박피에 준할 수 있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피를 재생시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증상을 타깃으로 합니다. 모공, 주름, 여드름흉터, 흉터, 잔주름, 피부 탄력개선 효과까지 팔방미인 레이저의 탄생입니다.

난공불락의 치료로 여겨졌던 튼살치료 역시 전용 팁이 있어 정상피부에는 손상없이 튼살부위에만 레이저가 빠르고 안전하게 조사되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편인터뷰 : Fun Interview

CNP 차앤박피부과내 인물들을 소개하는 코너로 유니폼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끼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동심으로의 회귀를 꿈꾸다. 동화 속 미소 가득

CNP 차앤박피부과 천안점 이정훈 원장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 어린이의 심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재미를 추구하며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일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키덜트족’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CNP 차앤박피부과의 키덜트 대표주자인 **CNP차앤박피부과 천안점 이정훈 원장.**

그의 진료실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자동차 모형이 색색으로 전시되어 있다. 내놓기 민망할 정도라고 수줍듯(?) 안내했지만 반질반질한 모양이 이채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다이캐스트와의 첫 만남
아버지의 선물이 계기가 돼

"장남감 가게에 가면 조립식으로 이거저거 만드는게 남자아이들의 놀이잖아요. 저도 프라모델을 많이 접하면서 조립식모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외국 다녀오실 때마다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는 다이캐스트인 금속모형을 사다 주셨어요. 모형자동차나 비행기를 좋아하니까 선물로 꼭 챙겨 주신거죠. 문구점에서 보는 모형과는 확연히 다른 디테일에서 장난이 아닌 다이캐스트에 매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삼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엷은 미소가 얼굴 전체로 번졌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마니아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거듭 강조한 이정훈 원장은 여행을 다니면서 꼭 방문하는 코스가 그 지역의 장남감 가게였다고 한다. 필수 코스인 장남감 가게에서 오랜 시간 구경도 하고 맘에 드는 게 있으면 구입을 했다. 부서질새라 옷으로 조심 스럽게 싸서 가져왔는데 그 기쁨은 여자들이 맘에 드는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설명했다.

다이캐스트와의 첫 만남

진료실의 진풍경
고객과의 대화 연결고리로 활용하기도 해

고객과의 대화 연결고리

대면 하기 쉬운 의사와 환자 혹은 고객이라는 관계 속 어색함을 잠재우는 역할은 한쪽 면을 장식한 자동차모형이다. 흔히 하는 질문은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인데 남자치고 자동차를 싫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 그런 자동차를 실제로 다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대리만족으로 수집한다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다 보면 고객과의 거리가 한 발자국 정도는 가까워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저에게 자동차 모형이란 동심으로의 회귀인거 같습니다. 아련한 추억 속의 수집활동이기도 하지만 말없는 전시품을 통해서 지난 기억들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모나지 않게 더불어 살려 하루하루를 노력하는'게 나의 생활신조인데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데 무언가 집중하는 건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CNP 차앤박피부과 천안점 이정훈 원장 역시 이제 막 동화책 속에서 나온듯한 맑은 미소로 행복 바이러스를 고객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줌인 : Zoom In

CNP 차앤박 피부과의 지점을 소개하는 코너로 보이지 않는 2%까지 지점의 면면을 시원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CNP 차앤박피부과 노원점

고객의 마음을 연구하는 피부과

노력하기를 멈추면 퇴보한다고 한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격한 표현도 있다. 연구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생각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CNP 차앤박피부과 노원점은 **'연구하는 피부과'**라는 말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곳이다. 병원내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고객의 피부와 치료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24시간 네티즌들과 호흡하기 위해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4명의 직원들은 연구원의 자임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의 아름다운 피부가 완성되는 곳!

관심의 순환고리, 고객의 니즈를 연구하는 피부과.

노원점을 들어서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측에 앙증맞은 우편함이 있다. 고객들의 불편사항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고객소리함인데 작성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배려해 노원점을 나서면서 편안하게 기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마음껏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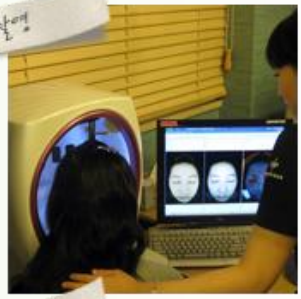
매달 부지런히 고객의 쓴소리를 공유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성예진 간호사는 "의외의 칭찬에 감사하기도 하고, 정곡을 찌르는 쓴소리에 고객 숙이며, 더욱 잘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게 노원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소리함을 열람합니다."

개원 초기부터 블로그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블로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상의 노출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가십성 자료는 생명력이 짧다는 게 노원점의 생각이다. 송원근 원장은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문 발표를 통해 보다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 성과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티즌들을 만나 책임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한다.

집념의 결과, 고객의 치료를 연구하는 피부과.

저명한 학회에서 PDT관련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섰던 송원근 원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PDT는 아무런 해가 없는 가시광선 빛을 조사한 부위에서만 작용을 나타내므로 치료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게 큰 장점이라한다. 세포의 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로 암을 치료하는데까지 영역을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PDT만큼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논문이 계속 나오는 분야도 드뭅니다. 피부과 분야뿐 아니라 PDT 분야는 새로운 광과민제의 개발이 또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의료산업의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PDT 치료가 피부과 영역에서 피부암, 건선, 여드름 치료의 주를 이루지만 향후 다양한 광과민제가 개발될 것이며 피지선에 보다 선택성이 높은 광과민제가 개발되어 지금보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이는 치료 결과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치료 후 48시간 동안 햇빛 노출이 제한되지만 사계절 모두 시술이 가능합니다." 진료가 비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업무를 시작 전 혹은 마친 후 1시간 정도 활용해 임상 및 연구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송원근 원장은 열정이 어느때보다 빛났다.

송 원근원장


PSI 촬영

팀원의 원동력, 고객의 피부를 연구하는 피부과.

노원점은 세 명의 의료진과 1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의 피부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만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직원들 역시 한명의 연구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을 위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원들이 공부하고 직접 발표하는 자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송원근 원장은 고객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노원점의 모토라고 전했다.
전체 직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매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거리를 만드는 일련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생일 파티, 비밀 마니또 행사, 봄/가을의 연극 또는 뮤지컬 관람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회식, 여름 래프팅 MT, 겨울 스키장 MT 를 통한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노원점이 고객의 피부를 연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과 직원들의 화합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향하고 있다. 고객의 피부를 연구하는 마음이 이러한 진정성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노원점은 오늘 하루도 고객들의 사랑으로 즐겁다.

고객소리함

지금은 교육중

해피타임 : Happy Time

CNP 차앤박 피부과의 기분 좋은 소식 및 전 지점이 참여하는
캠페인, 제휴, 온오프라인 등의 현장스케치를 담았습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다.

24시간 실시간으로 CNP 차앤박피부과를 만나다

블로그는 어느새 트렌드다. 트렌드를 넘어 보통명사처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한국에서도 포털의 지원을 받아 황금기를 맞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업적인 제약 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올려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을 기존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일촌을 넘어 넓은 의미의 1인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언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언론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24시간 실시간으로 CNP 차앤박피부과를 만날 수 있는 창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양복 정장을 입은 듯 공식적인(?) 글들을 만날 수 있다면 블로그는 그야말로 수다의 공간이다. 블로그가 한국인의 정서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열광적인 네티즌들과 수다 떨 듯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폼잡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피부야를 절규하듯~
양재본원 블로그 (www.cnpblog.com)

피부이야기를 조근조근하게 하는~
명동 블로그 (blog.naver.com/cnpskin6)

피부를 위한 정직한 약속
성신여대 블로그 (blog.naver.com/cnpskin21)

피부지킴이를 실천하는
노원 블로그 (http://kr.blog.yahoo.com/skintopia1)

CNP 차앤박피부과 공식카페
피부가 이뻐지는 카페 (http://cafe.naver.com/cnpskin)

CNP 차앤박피부과 공식블로그
피부야 피부야 (blog.naver.com/cnp_skin)

포스트잇 : Post it

CNP 차앤박피부과 가족의 추억에 노랑, 파랑, 빨강의 포스트잇을 붙여 모두의 추억으로 엮어가는 코너입니다.
hasowsow@cnpskin.com

셀프 여행의 묘미, 일본을 접수하다.

사진, 글 압구정점 하 선 간호사

여행준비는 알차게, 마음 가득 일본을 품고

참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유하며 해외를 나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가보리라 다짐했고, 떠날 수 있게 됐다.

오랜 기다림 속에 내가 얻은 것은 셀프 여행을 통해 일본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저 국사책이나 지도에서 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도시민들의 일상까지 필독하듯 여행 준비를 했다. 그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떠났다.

일본여행의 시작은 어느 도시로 갈 것인가 였다. 도쿄는 너무 도시스러웠고, 그 외에도 갈곳은 너무 많았다. 제 2의 교통 중심지라고 하는 오사카는 어떨련지. 일본여행의 추천일정이며 까페/블로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일정은 내 맘대로 짜고, 숙박도 직접 예약했다. 항공권 예약은 필수. 셀프 여행의 묘미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일본여행 관련 책을 탐독하면서 마음 가득 일본을 품게 됐다.

백만불짜리 야경과 미각이 즐거운 오사카

일본에 도착하자 처음 본 일본 핸드폰. 일본에는 예쁜 디자인의 핸드폰이 즐비했다. 일본하면 핑크빛 핸드폰이 제일 먼저 연상될만큼 나와 일본의 첫인사는 핸드폰이었던 거 같다. 오사카의 야경은 으뜸이었고 교토는 시골도시답게 단조로웠고 고베는 항구 도시답게 운치 있었다.

오사카 시내는 우리 나라의 부산과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공중정원 야외에서 바라본 오사카 야경은 말그대로 우주공간에서 바라보는 것은 백만불짜리 야경이었다. 일본에서 먹었던 타코야끼는 부드러운 게 참 맛있었다. 그외에도 현지에서 먹는 오꼬노미 야끼, 두둠한 돈까스, 탱탱 쫄깃한우동, 일본식라면, 생선살이 두툼하고 신선한 초밥은 정말 최고였다.

옛 것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토

간사이 지방에서 제일 볼것이 많은곳이 교토다.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라고 생각하면 쉬울듯하다. 교토에서는 이쁘고 아담한 일본식 정원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금각사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서 몇분 동안 꼼짝않고 바라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토에서 특이하게 모래와 돌로 만든 정원이 있는 료안지라는 곳이 있다.

15개의 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5개, 2개, 3개, 2개, 3개씩 무리지어 배치하였는데 돌의 모양, 크기, 배치를 통하여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모래는 망망대해를 표현하고 돌은 섬을 표현하였는데 어느 곳에서 보아도 15개의 돌을 볼수가 없는것이 신기했다. 특이한 정원이라 외국인들 모두 마루에 앉아서 엄숙하게 정원을 보는 모습이 더욱더 볼만했다.

정원이 아름다운 히메지성, 사슴과 조우한 나라

오사카에서 1시간반정도 전철을타고 가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히메지성에 도착할수 있다. 히메지 성은 국보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보존도 잘되어 있다. 히메지성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웅장했다. 우리나라의 여느 궁과 다르게 높이가 높았다. 정원이 잘 발달하여 나무들이 많았는데 사계절 어느때 가도 장관이라고 했다.

나라는 출국하는 날 시간을 내어 다녀왔다. 신사 안에 사슴공원이 있는데 안전하게 뿔을 자른 사슴들이 공원 안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삼베과자를 사서 먹일 수 있었는데 길가에도 나와서 걸어다니고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공격할 거 같아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슴들이 넓은 곳에서 맘껏 다니는것이 좋아 보였다. 꺅~~ 나 사슴만졌다~

여행에 대한 단상- 배낭 풀기

여행은 내 삶의 활력소다. 휴가 일정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 자신에게 스스로 휴가를 준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반신반의하며 떠났던 일본은 깨끗하고 사람들이 참 조용했다는 이미지다. 앙증맞은 캐릭터 제품이 즐비하고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어여쁜 카페며 실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다. 야경 역시 시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라운지를 내어주는 빌딩촌의 인심이 훈훈했다.

일본은 관광객으로 갔을 때 반하게 되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리고 셀프 여행을 통해 전반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충전하고 올 수 있었다. 일본은 그렇게 나의 마음 속에 있다.

인터뷰게임 : Interview Game

CNP 차앤박피부과의 기분좋은 소식 및 전 지점이 참여하는
캠페인, 제휴, 온오프라인 등의 현장스케치를 담았습니다.

"무채색 고객사랑을 실천하는 CNP 차앤박피부과 신촌점의 열돌 잔치

10주년을 축하해준 고객들을 인터뷰하다.

Congratulations! 10th Anniversary

들어가는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내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루에도 백번은 '감사합니다'를 우렁차게 외친 지점이 있다. 부침이 심하다는 신촌에서 고객들의 사랑을 10년동안 독차지 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싶다.
고객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꾸밈없는 인사로 '성실한 진료'로 보답하겠다는 밋밋한(?) 감사 인사가 신촌점의 무채색 진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신촌점을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해 준 고객들을 찾아 나섰다. 이름하여 CNP 차앤박피부과 신촌점 10주년 고객 인터뷰 게임이다. 진솔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한다.

인터뷰어 김연주 수간호사

질문 1.
우리 신촌지점을 비롯하여 CNP 차앤박피부과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신촌 CNP차앤박피부과에 내원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연이 있으십니까?
질문 3.
CNP차앤박피부과는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 5글자로 표현하다면?

내 피부의 수호천사 그리고 또다른 가족

공덕동 우연정 고객님

9년 정도 다닌거 같습니다. 거의 개원 초기부터 다녔는데요. 우리는 엄마, 언니, 동생까지 온 가족의 피부 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촌점의 장점은 그저 산보나가듯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 인거 같습니다. 9년동안 제 피부 상태에 맞게 다양한 진료법을 제안해주고 거의 100% 만족할 수 있는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내 피부의 수호천사인 셈이죠.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제안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도 모르게 신촌점의 알림이가 되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다녀온 분들이 모두 만족하고 '참 잘하더라'고 말해주면 제가 다 뿌듯해 진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에게 CNP 차앤박피부과 신촌점은 **또다른 가족**입니다. 10주년 축하드리고, 항상 내 피부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피부의 완전한 친구

연희동 김혜윤 고객님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 진솔함이 느껴지잖아요. 정성껏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신촌점을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데 한결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십년동안 변함이 없어요. 시술은 물론이고, 제품은 왜 그렇게 좋은지.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차앤박, 차앤박'이라고 말하게 된답니다.

항상 좋은 추억들을 주셔서 내가 고마울 따름인데 언젠가 한번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첫 내원한 고객이 대기하다가 저와 이래저래 말을 섞게 됐는데 내 피부가 좋아 신뢰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뿌듯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화장품 좋다는 이야기 하게 되고... 차앤박은 어느새 나에게 **완전한 친구**가 된거 같아요. 항상 차앤박 알림이로 함께 할 생각입니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나의 머스트 해브 (Must have)

내수동 김동환 고객님

박건수 원장님을 비롯해 선생님들께서 너무 친절합니다. 정말 가족처럼 대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촌점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함 만큼이나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는 없으니까요. 제게 맞는 진료는 물론이고 시간 편이성과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려해 스케줄을 짜주기 때문에 나에게 있게 CNP차앤박피부과 신촌점은 머스트 해브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까 고민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피부 상태를 점검해 주고 무리가 되지 않게 안내해주고 안심시켜 줬던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고객을 단지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구나란 생각을 했으니까요.
내 피부건강의 주치의이자 **머스트 해브**인 이유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20, 30년이 넘도록 신촌점에 함께 하면서 대대손손 만나고 싶습니다.